

▶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1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순수·응용’의 한 획 긋는다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예술회관 및 무주태권도원 일원에서 ‘순수와 응용’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비엔날레의 지난 20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서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에 선다. 서예 본래의 전통적 노정인 역력·기氣·도道·예藝의 방향을 통해 순수예술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예의 응용방향 및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제11회 비엔날레는 디자인 서예, 인테리어 서예, 서예 치료, 도시경관 서예 등 서예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응용예술로서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특히 서예가 갖는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서예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1회성 필획의 율동성과 운동성을

음악·무용 등 융합공연으로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진단

중국 대상 비엔날레 홍보 수학여행단 유치 가능성 타진

전시·학술·연계행사 등 5개부문 25개로 펼쳐

바탕으로 창작하는 예술이어서 미술보다는 오히려 음악이나 무용 등과 같은 순간·공연예술과 흡사하다는 점에 착안, 비엔날레는 서예와 음악·무용·패션을 융합한 개막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 비엔날레를 적극 홍보해 중국학교 수학여행단의 유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서예과목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 비엔날레 통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유도함은 물론 서예를 실질적인 문화관광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개막·전시·학술·부대·연계행사 등 5개부문 총 25개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행사로는 한·중·일 및 세계 15개

국 20여 명이 참가하는 ‘역·기·도·예 서론 서예전’을 비롯해 우리 사회 명사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서예의 대중성을 이끄는 ‘명사 서예전’ 서예작품을 심사 출격하여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생활서예전’ 한지 등에 시·서·화를 작품화하여 전시하는 ‘등불서예전’ 건강에 대한 명구를 패널 형식으로 표구하여 전시하는 ‘역·기·도·예 양생 서예전’ 지난 2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친 전북의 서예가들의 작품을 공개모집해 전시하는 ‘전북우수작가서예전’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서예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수집 및 전시하는 ‘세계한국문화원 서예수강생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 일정에 맞춰 기획된 ‘태권도와 기발서예전’ 등이 마련된다.

/정해은 기자

“관객 모두가 즐기면서 창작자와 대화하는 자리 마련할 것”

무주산골영화제 추진보고회 개최 마을상영관 통한 콘텐츠 전달 관람객 불편 최소화 등 논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추진상황보고회가 13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정수 조직위원장(무주군수)과 유기하 집행위원장,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공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가 가진 다양하고 특별한 콘텐츠들이 마을상영관(두문, 서면마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산골영화제를 무주군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국내외 영화인들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과 어우러진 산골영화제만의 독창성을 살리고 태권도와 반딧불이, 나뭇잎이 등 무주를 소재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추진상황보고회가 13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 창작영화를 제작·상영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황 조직위원장은 “여기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골영화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전국의 영화 마니아라는 입장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며 “모든 것을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무주를 떠나무주동장과 산골영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설뿔, 울림, 어울림’ 영화야 소풍갈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경정부문) 뉴비전상(대상) 상금 1천만 원, 전북 영화비평포럼상 상금 3백만 원, 무주관광객 상금 2백만 원, 관(전 세계 명작영화), 락(공연과 함께 즐기는 국내외 영화), 숲(캠핑과 함께 하는 숲 속 영화관), 길(마을 영화관) 색션을 통해 25개국에서 초청한 70여 편의 영화와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 측은 “동화 속의 영화마을”을 소재로 한 포스터를 공개하고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영화배우 류현경(제2회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수상작 ‘민신’ 주연)을 홍보 대사로 선정·발표했다.

무주산골영화제 관계자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쉬어가며 영화를 즐기는 휴식같은 영화제이며, 영화보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작은 영화축제”라며 “올해는 영화제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반영해 관객 모두가 다양한 영화를 보고 즐기면서 창작자와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영상위, 연극 콘텐츠 공개모집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17 전북 문화콘텐츠 융복합 사업-PLAY X MOVIE’ 연극 콘텐츠를 공개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영상인프라를 융합하여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노송동천사를 소재로 한 연극 ‘천사는 바이러스’가 영화로 제작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반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연극 ‘수상한 편의점’을 하반기에 촬영할 계획이다.

공개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무대에서 초연이 된 대본이면 출품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극 대본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북 소재 연극단체 또는 개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j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을 통해 접수된 연극대본은 별도의 심사 없이 모두 감독들에게 공개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발표

에두아르 바에르 감독·박혜진 아나운서 등 2명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개막식 사회자가 발표됐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식 사회자로 프랑스 배우 겸 감독인 에두아르 바에르와 박혜진 아나운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막식 사회자를 맡은 에두아르 바에르는 3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프랑스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 지난 2008·2009



에두아르 바에르



박혜진

년에 간영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맡았다. 이후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다가 지난해 영화 ‘파리의 밤이 열리면’에서 주연은 물론 각본·연출까지 도맡으면서 감독으로 데뷔했다.

전주 출신의 방송인 박혜진은 MBC 뉴스데스크를 3년간 진행한 간판급 아나운서로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뉴스타파’와 함께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은 이후 각종 작품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으며, 지금은 TBS에서 ‘주말아침 박혜진입니다’를 진행하며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와 시사사를 정리하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에두아르 바에르 감독은 과거 칸 영화제에서도 유쾌한 진행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에두아르 바에르가 주연과 연출을 맡은 작품 파리의 밤이 열리면 ‘전주 돌 상영’ 색션을 통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파리 도심을 관통하는 로드무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에두아르 바에르 감독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박혜진 아나운서는 노력한 진행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자로 고향인 전주에서 봄의 영화 축제를 활기 넘치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신 있게 소개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이야기 자원 공연회’ 공개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전주이야기 자원 공연회 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17 ‘전주이야기 자원 공연회 지원 사업’은 전주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공연예술 작품제작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의 단계별 지원은 공연제작기획서 심사를 통해 최대 5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100만원씩, 이어 2단계로 공연대본 심사를 통해 최대 2단체를 선정해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연대본을 바탕으로 한 시범공연제작기획서 심사에 선정된 단체는 제작비용을 최대 2,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6년 ‘전주이야기 자원 공연회 지원 사업’은 스토리텔링 문화그룹 애기보따리(대표 최기우)가 최종 선정되었고, 시범작품 ‘달랑개’를 선보여 문화예술계로부터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이어 올해도 전북문화관광재단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브랜드 공연으로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실연되지 않은 창작 초연 작품으로 전주시 소재 공연예술 단체면 가능하다.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jcc.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국제영화제 대비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열어

전주시가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18회 전주 국제영화제’를 가장 안전한 영화제로 치르기로 했다.

시는 13일 박순중 전주시장과 완산경찰서, 완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들은 △국제영화제의 안전 관리총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구조·구급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처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용객 안내방송 및 안전요원 교육 실시 △영화관별 안전상황 매뉴얼 점검 △게이트에 지프지키 배치 사전 임무 지정 부여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년마다 시청하드코어 안전에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를 영화제 조직위와 담당부서에 통보해 축제 전까지 불안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영화제 개최 전 각 축제장(영화관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양도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의 및 안전점검 병행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개최장소가 산·수면이거나,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김민근 기자

▶▶ 공연 & 전시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형극 ‘이인식 선생’ 공연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오는 16일부터 군산출신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의 삶을 극화한 인형극을 공연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인형극 팀을 운영 중인 근대역사박물관은 2012년부터 매년 군산출신 독립유공자의 삶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왔다.

올해의 인형극 공연은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일요일 두 차례(14시, 15시)에 걸쳐 박물관 2층 규장각실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춘고 이인식 선생은 일제 강점기 3·1운동에 학생대표로 가담하여 독립유공 조달 등 항일운동을 펼쳤으며 해방 후에는 사재를 털어 폐교 위기에 놓인 인피중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신 분으로 현재 월명공원에 선생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인형극 공연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 인형극 자원봉사단(회장 지미옥)은 1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와 연출가(김현량)로 구성되어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중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인형극 팀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해 왔다.

/군산=정현 기자